

지금 생활하는 그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

청주 법인정사에 들어서자 소박하면서도 정갈함이 느껴졌다.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이곳 법인정사에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도량이 벌써 안심법문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설우 스님의 처소엔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는 현판이 달려있다. '무위진인', 법인정사에 들어서서 이들에게 직접 안겨주는 화두일지도 모른다.

"붉은 몸뚱이에 한 사람의 무위진인이 있다. 항상 그대들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아직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라" 고 한 인제 선사님의 일갈이 들리는 듯하다.

설우 스님은 조계종 간화선 수행지침서 편집위원을 역임했고, 불교TV에서 <선요>강의를 해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고행 화상이 저술한 <선요(禪要)>는 화두참선의 지침서로서 쉬운 책은 아닐진대 설우 스님은 그것을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해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스님은 화두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간화선을 풀어나갔다.

"화두는 논리와 분별심을 뛰어넘는 자기만의 체험의 경지에서 직관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스스로 화두의 세계를 자락(自樂)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그 경지를 스스로 수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경지를 두고 화두의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화두공부는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적으로 얻어지는 문답식의 공부라 아니며,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두에서는 분별로 알아들이고 들어가는 것을 사구(死句)라고 하지요. 화두 드는 자가 알아들이기 통해서 화두를 조금 집착하게 되고 옛보게 되는 것은 스스로가 허망한 중생 업식에 속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활구(活句)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 즉 공안이란 아닌 모든 것을 차단해 알아들이기 분별의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게끔 예리한 칼로 끊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곳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두공부를 제대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여쭙았다.

"우리 마음의 번뇌와 고통은 허공에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같아요. 번뇌와 집착 등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실체가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밖에서 오는 인연에 의한 것이며, 내 마음의 판단에 의해서 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번뇌와 고통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고 관한다면 화두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옛 사람들은 '물속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그것을 건지려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했어요. 또 <선요>에는 '우물에 눈을 저다 배우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합니다. 번뇌, 망상, 욕망의 그림자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것임을 알면서 지우려고 공부하는 것을 두고 우물에 눈을 저다 부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눈 얼 집을 저다 우물에 부어도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공부도 우물에 눈 저다 부는 것처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물에 흙을 한 집 저다 붓고 두 집 저다 부으면 저다 부은 만큼 우물에 표시가 있어요. 실체도 없는 번뇌와 망상, 아망의 그림자가 실제로



선지식인을 찾아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없애려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우물에 흙을 저다 배우는 것과 같아요."

지금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 등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고 하니 고통을 만드는 것은 자신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설우 스님은 '우리는 기능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부처님과 조금의 차이도 없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본래 성불했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찾고 뒤야 할 것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없애야 할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란다.

"화두는 본래 성불돼 있는 자리, 본래 청정한 자리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직로(直路)입니다. 완성돼

있는 무심한 자리를 화두가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화두는 절대 알아들이거나 분별의식으로 풀이 들어가면 아무리 해도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유 분별을 차단해 버리고 바로 우리 본성 자리를 화두로 참구해가면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조주 스님은 왜 뜰 앞의 잣나무라 했을까' 하고 그것 하나를 들고 의지해 들어가는 것이지요. '뜰 앞의 잣나무' 앞에서는 수단 권의 책도 소용 없고 경전 천 권을 읽어 독파를 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공안을 동문서답이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정견과 법안이 없이 허공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우리 본성을 확철하게 깨칠 수 있게끔 하는 직관해 들어갈 수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스님

설우 스님은 ...

1971년 원명 스님을 은사로 원적사 입산출가. 1975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8년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수도암, 도성암 등에서 25만여 성만. 조계종 간화선 수행지침서 편집위원 역임. 지금은 법인정사 선원장이며,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를 맡고 있다.

설우 스님께 출가동기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불교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저 의롭고 쓸쓸해서 출가했다면서 스님 특유의 환한 웃음을 짓는다.

"속가의 부모님은 불심이 깊어서 칠남매 모두가 출가하기를 바랐던 분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공부하신다고 집을 많이 비웠기 때문에 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래서 많이 외로웠어요. 어릴 때는 불교도 싫었고 스님도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점이 남달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출가를 했습니다."

설우 스님은 출가 목적이 성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회상

공부의 중요 덕목은 '정견·믿음·발심·공덕의 회향'

우물에 눈 저다 부어도 표시 안 나듯 그렇게 공부해야

번뇌·망상에 집착하는 것은 우물에 흙 저다 배우는 것

있는 법칙성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선문답을 하면, 스승은 제자의 질문에 세상살이처럼 비슷하게 풀어서 답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은 제자의 질문 자체를 뺏어버립니다. 제자가 그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성불된 부처자리와 성불하지 못한 중생 자리가 있고, 열반의 자리와 생사(生死)의 자리가 있고,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다는 상대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속성에 분별심과 차별심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스승은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있는 질문의 속성 자리를 부수어 버립니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 상대성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는 소리가 바로 '뜰 앞의 잣나무' 인 것입니다. '뜰 앞의 잣나무'에는 부처도 중생도 번뇌도 보리도 주관도 객관도 없고, 알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교학적으로 말하면 알 수 없는 그 자리는 '연기법의 자리'를 말합니다."

스승은 제자의 마음에 깨달았다든 혼적과 자국이 남아있으면 그것마저 빼어버린다. 빼어버리면 비로소 제자는 '증득했다, 깨달았다'는 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본래 성불된 그 자리에서 일상으로 돌아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하는 평범한 보살이 되는 것이다.

빠르지 않은 말투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설우 스님의 한 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의 가슴에 사무친다.

했다. 어머니 소개로 청담 스님의 상좌 원명 스님과 연을 맺었고, 상주 원적사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원명 스님은 평생 선승으로 살다 가신 분으로 참으로 부지런한 분이였다. 출가한지 며칠 만에 은사 스님은 공을 한 바가지 주면서 밭에 심으라고 하더라. 공을 두알 씹 넣어서 심어라고 했는데, 날은 덥고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콩 대어섯 알씩을 넣어서 심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 군데서 대어섯 포기씩 짝이 올라오는 것을 본 은사스님은 "너는 출가할 선근이 없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부터 배우니 집에 가거라"면서 내쫓았다.

집으로 돌아 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출가는 정직하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네가 잘못했다. 스님께 가서 참회하고 빌어라"고 했다. 다시 원적사로 돌아 온 상좌에게 원명 스님은 한 달 동안 '하루에 삼천 배씩 하라'고 명을 내렸다. 법당에서 삼천 배를 하니 힘이 들고 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참고 견디어 냈다고 한다.

은사스님을 모시고 육 년 동안 토굴 생활을 했는데, 은사스님은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쳤다. 나무 심고, 약초도 심고, 밭에 김도 매는 등 하루 종일 일하면서 화두를 들었다. 설우 스님은 동중(動中)에서 일하면서 나를 공부라 즐겼다고 했다. 물론 선방에서 30만거를 보냈는데 제도권 내의 틀 속에서 공부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증흥발전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불사의 어려움을 탄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기술

- 제품명: 순금전불인법륜대
- 재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엄장소멸 법륜대 부처님 자비로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행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재가자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건본을 드립니다.

■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여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